

# 라이겐의 유아교육학적 의미

윤 선 영\*

본 연구는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라이겐에 대하여 문헌과 실제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교육학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겐의 원조는 원형의 전통 춤이며, 본래 인간이 우주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세상으로부터, 집단, 나로 의식을 모으는 과정에 기여했다. 오늘날 라이겐은 움직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육화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겐은 음악적 요소, 언어, 동작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이 담기고, 펜타토닉 음으로 어린이에게 보호의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라이겐은 지나친 인지적 자극과 기계에 의존한 생활에 의해 움직임이 적고 정돈되지 못한 유아에게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신체, 영혼, 정신세계의 삼차원적 발달을 돕는 전인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학적 의미가 있다.

※ 주제어 : 라이겐, 동작, 육화과정, 펜타토닉, 신체감각, 전인교육, 치료교육

## 차 례

### I. 서 론

### II. 본 론

1. 라이겐의 목적
2. 라이겐의 특성과 실제
  - 1) 형태
  - 2) 내용
  - 3) 동작
3. 라이겐의 유아교육학적 의미
  - 1) 전인교육으로서의 의미
  - 2) 치료교육으로서의 의미

### III. 결 론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부교수

## I. 서론

국제 슈타이너발도르프유아교육협회 이사이며 독일 발도르프킨더가르텐 연합 회장인 랑샤이드(O. Langscheid)(2009)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움직임이 현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요로운 기계 문명의 혜택, 머리 중심의 학습, 부모의 과잉보호 등에 의해 어린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생활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 중 수학·과학에서 1·2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와 한국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혼자 연필을 깎거나 단추를 달아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 수가 핀란드에 비해 한국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09).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에 몸을 사용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손기술이 중요한 의료, 예술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즈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젓가락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손재주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라는 평가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른 도입으로 모든 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전자 게임 등으로 인해 바깥에서의 또래 간 놀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그나마 특기·적성 교육도 태권도나 발레 등 훈련에 의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아기에 수(手)작업이나 율동 등 몸으로 행하는 움직임이 신체 발달 뿐 만 아니라, 뇌세포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움직임의 속성에 있다. 어린이에게 가장 적절한 움직임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자기행동”이며(Patzlaff, 1995, 486),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어 즐거움이 있는 리듬놀이이다. 그런데 한국 유아들의 경우 컴퓨터와 인위적인 수업매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교육으로 인해 어린이가 자기행동을 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움직임 또한 운동 지각 능력과 동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배우기 위한 움직임과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주지주의 또는 기능주의적 측면이 강조되어, 자기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동작놀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는 라이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라이겐은 전신을 사용하는 예술 활동으로서, 본래 원형의 전통춤(Kreistanz)인 “라이겐”에서 유래되었다(한국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2001). 세계 어느 민족이든 전해 내려오는 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변하며 확산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왈츠나 폴카 등도 라이겐이 그 원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원형 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강강술래이다. 따라서 라이겐은 원형 춤이라는 뜻이 강하여 “윤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전통춤의 형태를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가? 리듬, 멜로디, 언어, 움직임은 영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신체 놀이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의 대표적 예술 활동 중 하나인 라이겐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리듬놀이이다. ‘라이겐’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성인 중심이었던 전통춤과 인간의 의식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작들은 주로 주의집중을 위한 손유희, 수교육, 언어교육, 창의성, 극놀이 등과 생활주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동작활동이 있다(예; 이영심, 2000, 이송은, 2002). 오연주 등(2000)에 의하면 유아 동작교육의 목적은 기초적인 운동능력, 인지능력, 언어능력, 표현능력, 사회성 등의 발달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발달시킬 뿐 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통합교육 영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김은심은 “신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함을 동작교육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다(김은심, 1994, p. 135). 최근에는 ‘오디에이션’을 활용한 음악과 동작의 통합 활동(윤은미, 2007), 그리고 창의성 발달과 연계한 동작활동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백성희, 이해은, 2006).

그러나 손유희는 대부분 어린이들의 관심을 교사에게 모으는 것이 목적이고 생활주제와 관련된 활동들도 거의 가르침의 교육적 의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작의 질적인 측면 또한 신체의 활용과 표현, 음악적 감각을 위한 인위적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자신이 담기는 본질적인 움직임 경험하기 어렵다. 김은심(1994)의 연구에서는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측면이 연구 문항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처럼 동작활동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는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의집중, 기본운동 능력과 창의적인 동작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동작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김은심과 박수미, 2003) 실제적으로 다른 활동에 비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신체를 의식화 하고 움직임을 정돈할 수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발도르프유아교육이 한국에서도 확산되어 여러 유아교육기관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라이겐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발도르프교육을 소개한 몇몇의 저서(곽노의, 1999, 윤선영, 2002, 강인구, 2006)가 있으나, 라이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을 뿐,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 방법과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은 미비하다. 따라서 라이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를 위한 동작활동으로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몸으로 하는 유아를 위한 활동 중 움직임에 해당하는 라이겐을 행하는 목적과, 라이겐에 담긴 각 요소의 특성을 문헌과 실제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어린이에게 필요한 움직임과 관련한 유아교육학적 의미와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라이겐 속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루어져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담겨 있는 움직임의 고갈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는 라이겐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유아들에게 라이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둘째, 라이겐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실제 어떻게 행하는지 그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라이겐의 의미와 특성은 움직임이 적은 현대의 어린이들을 위해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를 지니며 유아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Ⅱ. 본 론

### 1. 라이겐의 목적

예전 사람들이 집단으로 추던 춤에는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담겨 있는 특징이 있다. 슈타이너(R. Steiner)는 그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에서 “춤이란 행성이나 다른 우주체들 그리고 지구 자체가 실행하는 움직임을 인간이 사지의 움직임 속에 모방하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Steiner, 1975, p. 159). 예전 사람들은 주로 원을 그리며 추었는데, 원의 형태는 우주의 모상이자 삶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며 행성의 움직임을 느꼈고, 또한 생명의 과정을 ‘주기’와 ‘반복’으로 인식했다. 예전 사람들은 집단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었기 때문에 춤에는 집단으로서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담겼었다. 춤에 담겨 있는 움직임은 물리적 세상의 표현 즉, 이 세상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깊이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으로서, 인간이 “감각적인 세계에 완전히 들어와 내 안에서 새로 창조하는 세상”이었다(Sassmannshausen, 2001, p. 44). 춤을 추면서 세상으로부터 인간의 중심으로 향하는 종교적 차원을 경험했다. 인지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인간의 육체에 개별성이 연결되는 것” 즉, “육화과정”과 동일시하고 있다(Jaffke, 2000, p. 13). “육화과정”이란 인간의 “정신적 존재”가 여러 번의 탄생을 거쳐 지상의 감각적인 존재와 연결

되면서 발달하는 것이다(Sassmannshausen, 2008, p. 22). 처음에 인간의 의식은 주변 세상에 연결되어 세상과 하나였으나, 라이겐과 같은 춤을 통해 의식이 집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기가 태어나 세상과 하나로 살다가 서서히 자신 안으로 의식이 들어와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신체 끝 부분까지 목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발도르프교육학에서 영유아기 생애의 과업은 육화과정이며, 교육은 이 과정을 동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Sassmannshausen, 2008, pp. 23-24). 라이겐은 자신의 신체를 노래와 시를 읊으며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유아에게 육화과정을 돕는 좋은 놀이로서 사용된다. 어린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세상에서의 ‘나’, 집단에서의 ‘나’, 자신으로서의 ‘나’로 들어오게 된다. 부모로부터 선사받은 물리적 육체(모델체; Modelleib) (Steiner, 1992)인 집에 들어온 자아가 점차 자신만의 집으로 만들며 진정한 주인이 되어 간다. 여기에 삶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행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행동,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어린이들은 삶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또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이화도(2009)는 인간의 ‘몸’을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 의미, 이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된 자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몸’을 통한 학습 경험이라는 유아 교육적 의미를 연구한 바 있다. 그는 메를로 퐁티의 생각하고, 말하고, 지각하는 ‘몸’에 대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유아가 ‘몸’을 통해 세상과 타인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학습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는 ‘몸’을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육체에 서서히 영혼과 정신의 의식이 깃들어 깨어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발도르프유아교육학적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 안에서 유아들의 지각을 길러줄 수 있는 ‘몸’ 중심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상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자연현상이 담긴

움직임으로 친숙해질 수 있다면, 이는 몸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발도르프교육학의 학습 원리와 일치하게 된다. 여기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모방능력이 작용하여 의지의 힘을 일깨운다. 의지가 몸 안에서 춤을 추고 놀이를 하는 동안 라이겐의 말놀이(잇구)와 음률은 내면에 그림(Bild)을 만들어 내고, 이 그림은 점차 직접적인 사물과 분리된 표상(Bil표상은 이후에 개념을 창조해 낸다. 즉, 발도르프교육학의 기본이 되는 몸-가슴-머리로의 학습과정 원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이겐은 일발도르쉴을 예술적으로 형태화 하여 만들어진 움직임의 예술로서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실제의 생활작업과 어울려 어린이들이 진실이 담긴 움직임 직접적인 사한다. 기계문명이 하계한 현대에서 세상 직가발도르공간으로 그것도 결과만 직접적인는 어린이들에게 라이겐은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L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 사뵈기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자신의 내면과 행동으로 연결하여, 스스로의 환타지로 몸짓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이겐의 움직임은 슈타이너가 제시하고 있는 열 두 감각(Steiner, 1975) 중 영유아기에 주로 발달하고 있는 “촉감”, “생명감각”, “고유운동감각”, “균형 및 방향 감각” 등 주로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감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감각은 무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의지력의 원천이 되므로 “의지감각”이라고도 칭한다(Steiner, 1975, p. 134). 생명감각은 반복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영양 섭취 등에 의해 신체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감각이며, 고유운동감각이란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각을 의미한다. 리듬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라이겐은 자신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들숨’의 과정으로서 하루 일과 중 자유놀이의 ‘날숨’ 사이에서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여 매일 반복되는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 안정감 있는 신체의 느낌을 형성해 준다(생명감각).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느끼며 정돈하고, 자기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을 지각한다(고유운동감각과 촉감). 또한 공간 이동과 비이동, 양극성을 띤 다양한 움직임은 균형 및 방향감각을 촉진한다.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라이겐을 하는 목적은 어린이의 의식이 자신 안으로 들어와 신체의 주인이 되는 육화과정을 돕고, 자신의 의지 힘으로 모방을 통해 몸으로 학습하는 유아기의 학습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신체 및 의지력과 관련이 깊은 기본 감각기관의 발달과 관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2. 라이겐의 특성과 실제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의식을 자신으로 모으는 '들숨' 활동 중 하나로 라이겐을 하고 있으며, 리듬생활이 바뀔 때까지 하나의 라이겐을 거의 2-4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라이겐은 운율이 들어 있는 시와 노래, 인간의 생활과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는 전신 동작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라이겐에 담기는 요소를 크게 형태, 내용, 동작 방법으로 고찰해 보겠다.

### 1)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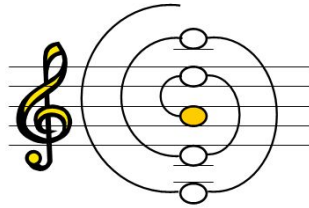
라이겐은 음악의 요소인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시의 운율 형태를 지닌다. 때로는 리듬과 운율이 담긴 시만 읊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한다. 엘러직(W. Ellersiek)은 목소리와 언어의 창조적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몸짓으로 만들어 낸 동작예술가이며,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의 동작교육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가 말과 몸짓으로 행하는 동작은 곧 성대의 움직임에 의해 음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 여기고, 동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 언어의 속성을 가지고 리듬적이고 음악적인 놀이를 만들어 엄마와 아기를 위한 놀이를 개발했다(Ellersiek, 2001). 언어를 리듬적·음악적으로 말하며 아기를 어루만져주는 스킨십 놀이("Liebkoschen")와 손동작 놀이, 라이겐 등 그가 창작한 리듬놀이를 지금은 전 세계의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배우고 있다. 다양성과 순수성을 가장 많이 지닌 놀이감은 모래이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놀이는

말하기라 한다(Internationalen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erten, 2000, 2001에서 재인용).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소리의 말놀이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풍요로운 영양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라이겐을 하는 교사는 의성어, 의태어, 리듬감 있는 단어와 낱구의 운율 등 언어가 지니는 예술성과 본질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느끼며 시를 짓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예; 망치질 한다, 똑딱 똑딱), 단어들은 울림(소리)과 그림을 담게 해야 한다(예; 썩 썩, 바스락, 사랑거린다). 그러면 라이겐을 만들고 사용하는 성인에게도 언어에 대한 섬세한 이해력이 생겨나게 한다. 반복되는 문구는 어린이의 신체와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교사는 언어를 가능한 자연스럽고, 조용하며, 즐겁고, 보통의 목소리로 내되, 자음은 강조될 수 있다(예; 깊은 산속 마법사가...).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낮을 잃게 하거나, 큰 아이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드라마틱하게 꾸미는 일은 하지 않는다. 초여름의 계절에 할 수 있는 라이겐의 시 중 일부를 통해 리듬적인 낱구의 예를 들어 보겠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누군가 땅을 두드리네요.  
똑 똑 똑 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똑똑똑똑 또도독 또도독  
따다다다 따다다다  
썩 썩 썩 썩  
모두 집으로 들어가 숨어요.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변쩍변쩍 변쩍변쩍(윤선영, 2002, p. 116)

노래를 부를 때에는 대체로 5도 음정의 펜타토닉 음(레, 미, 솔, 라, 시)으로 된 노래를 부른다. '라'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계속 5도 음정을 모으면 레, 미, 솔, 라, 시가 된다. 라의 음정은 중심 음으로서 노래의 시작과 끝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 라는 나사형으로 도는 원으로 확장되며, 다

시 제자리로 움직여 돌아와 어린이들에게 보호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Ellersiek, 2002, p. 18).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5도 음정

5도 음정은 하늘과 땅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세계와 같은 음으로서, 아직 세상이 하나인 어린이들에게 적절하다고 한다. 온음과 반음은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 느낌이고, 3도 음정은 인간의 내면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에 아직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는 5도 음정의 노래를 선호하고 있다. 리듬은 “메트로놈이나 박자와 같이 생동감 있는 흐름과 호흡을 파괴하는 기계적인 리듬이 아닌, 맥박과 같이 신축성 있는 시간적 질서의 리듬”을 중요시하고 있다(Ellersiek, 2002, p. 21). 따라서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펜타토닉 음의 노래들의 악보를 보면 박자를 나눈 마디 구분이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처럼 보인다. 성탄절 라이겐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중 야프케(F. Jaffke) 곡의 악보를 예로 들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성탄절 라이겐 노래 중 일부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의하면 생후 첫 7년 주기에는 어린이들의 혈액순환 조직과 호흡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서서히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Steiner, 1992, p. 21). 따라서 움직임, 언어, 노래는 생동감을 죽이지 않도록 전형적인 메트로놈이나 박자에 맞추지 않고 어린이 맥박의 빠르기에 맞추도록 한다. 맥박은 압박과 휴식, 충동과 이완의 양 극적인 속성을 지닌다.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리듬생활’도 달력의 월별 날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달(月)의 리듬(시작-성장-성숙-소멸)이라는 속성을 지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음정 하나하나를 두드러지게 내지 않고 보호막을 형성하듯 이어지게 부른다. 감정도 자제하고 내용도 강조하지 않는다. 때로는 어린이 하프와 같은 악기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 2) 내용

예전의 라이겐 내용에는 전쟁, 죽음, 임신 등 삶에서의 절실한 문제가 담겼었다면, 오늘날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겐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자연현상이 담기고 있다. 이는 예전의 춤이 성인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유아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발도르프유아교사였던 야프케(F. Jaffke)는 라이겐에 표현되는 동작을 “인간의 삶을 위한 노작 동작, 인간관계에서의 동작,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담긴 동작”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Jaffke, 1991, p. 9). 예를 들어 아기를 보살피는 행위나 인사, 감사 등의 동작이 있고, 유아교육기관 실체의 생활과 연결되어 밭을 매고 씨를 뿌리는 계절에는 씨 뿌리는 봄의 라이겐을 하거나, 열매를 거두는 계절에는 추수 라이겐을 한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 또는 장마철 비를 표현하는 라이겐을 하거나,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자연을 표현하는 겨울 라이겐이 있다. 삶의 노작 동작이 표현된 라이겐의 시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글동글 동글러

조물락 조물락 굴파고

콩, 녹두 듬뿍 넣고  
자근자근 꼭꼭 집어  
예쁜 송편은 반달이고  
미운 송편은 조각달이래(윤선영, 2002, p. 128 “추수” 라이겐 시 중에서).

우리 모두 둘러 앉아 김장을 해요.  
배추는 갈라서 소금에 절이고,  
무는 썰어서 양파 꿀과 섞어놓고,  
고추는 뺏아서 고춧가루 만들고,  
무, 양파, 갇은 양념 빨강게 버무려요.  
모두 빨개지게 텁석텁석 버무려요(윤선영, 2002, p. 130 “김장” 라이겐 시 중에서).

나는 숲 속의 커다란 곰  
숲 속을 이리 저리 쿵쿵 걸어 다니죠.  
꿀을 빨아 먹어요, 커다란 통으로.  
음, 행복해라! 이 꿀 맛.

나는 예쁜 멧쟁이 꿀벌  
꽃 속으로 기어 들어가  
꿀을 마셔요, 작은 컵으로.  
음, 행복해라! 이 꿀 맛(윤선영, 2002, pp. 122-123에서 재인용. 디스텔(H. Diestel) 시  
“동물들의 산보” 라이겐 시 중에서).

삶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라이겐을 통해 동작으로 경험하는 일은 어린이들에게 삶과 세상의 원리를 즐거움과 친숙함으로 자신과 연결하도록 도와준다. 계절, 직업, 도구와 기계, 동물과 식물,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을 지식이 아닌 몸동작으로 연결하게 한다.

### 3) 동작

라이겐은 동작 예술로서 즐겁게 움직임을 하며 어린이의 육화 과정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의식을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동작은 가르칠 수 없다. 동작 그 자체가 그 길로 안내할 뿐이다. 따라서 동작

은 모범의 역할을 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유아교육이란 유아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이 유아가 모방을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Steiner, 1992, p. 52)이라 할 정도로 교사의 동작은 모방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라이겐을 실제로 할 때 우선 교사는 동작에 자신을 온전히 담아서 행해야 하며, 움직임을 노래나 말보다 약간 앞서게 한다. 어떤 전형적인 동작에 구애받거나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치중하는 것 보다 사실적으로 적절한 동작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구에 맞게 하느라 여러 동작을 남발할 필요도 없으며, 말의 의미와 일치된 동작을 표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인위적인 움직임의 연속이 아닌 인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교사는 인간의 움직임과, 사물, 자연의 모습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극성(Polarität)을 지닌 언어와 동작 사용은 인간의 맥박 또는 호흡과 같은 속성으로 인해 리듬감을 더해주고 자각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과 어떤 형태로 고요히 머무는 동작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하루의 의식이 깨고 잠드는 리듬과 유사하여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과 연결하는 의식화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마지막 동작은 의식화의 정점을 이루게 되므로 고요함과 안정감을 주는 리듬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의식을 외부에 온전히 향하고 있는 자유놀이 때와 정 반대의 극을 형성하여 가장 강한 육화가 이루어진다(Sassmannshausen, 2008, p. 52).

슈타이너는 사지의 움직임과 영혼과의 관계를 “영혼은 사지가 춤을 추면서 실행하는 것을 스스로 반사하기 시작”하여 “사지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영혼은 으르렁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속삭이기 시작하며, 사지가 조화로운 우주의 움직임을 실행하면 심지어 노래를 부르기가까지 한다”고 표현했다(Steiner, 1975, p. 160). 이는 동작의 질에 따라 영혼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들이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날뛰며 노는 것이 즐거움의 표현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어린이의 의식을 라이겐 동작과는 반대로 자신 밖으로 내 쫓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만화영화에서 본 장면을 자신도 모

르게 따라하는 동작은 영혼을 억압하여 신체를 경직시키며, 본질이 담기지 않은 인위적인 동작은 세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르칠 수 있다. 라이겐의 동작은 진짜이며, 진실하고, 사실을 예술로 재창조하여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조화로운 동작이 어린이의 영혼을 춤추고 노래하게 한다는 것은 라이겐 동작의 독특한 예술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원으로 춤을 추는 것은 어린이의 몸이 우주에 속하게 하며, 5도 음정과 함께 하늘과 지상의 세계에 즐겁게 연결되는 형태로서 도입되고 있다. 북반구의 위치에서 지구의 자전방향과 같은 시계방향으로 원을 돌 때 어린이들의 생명력은 강해지며 무의식을 보호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원을 그리며 동작을 할 필요는 없다. 어린이들이 아직 성인의 보호가 많이 필요할 때에는 포도송이처럼 교사 주변에 모여 라이겐을 할 수도 있다. 라이겐은 역할놀이나 극놀이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라이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충분히 익숙해지면, 큰 아이들의 경우 무엇인가 더 해보고 싶어 하게 될 때, 꽃, 바람, 해, 나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천, 나무토막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모방의 기회가 충분했다고 여겨졌을 때 사용하되, 단 한 명씩만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피한다. 작은 집단이 하나의 역할을 함께 해 볼 때 어린이들은 더 안정감과 보호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어떤 연출을 통해 정해진 어린이가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역할(예; 해)을 자신의 환타지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극놀이가 되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들도 내면적으로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동시에 가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Sassmannshausen, 2008, p. 62). 특별한 날 특별한 계기로 예를 들어 축제날이나 생일을 맞이한 어린이가 있을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매 번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목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락하여 자칫 어린이들의 의지력을 제한하거나 부담이 될 수 있다.

### 3. 라이겐의 유아교육학적 의미

지금까지 살펴 본 라이겐은 음악과 동작에 관련된 신체활동이지만 그 목적과 구성요소 및 방법을 고찰해 본 결과, 유아들을 위한 전인교육과 치료교육에 적합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유아교육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 1) 전인교육으로서의 의미

라이겐은 음악적 요소 뿐 만 아니라 시를 사용하는 문학, 자연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과학 및 사회, 동작예술 등의 속성을 지닌 활동으로서, 전인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여러 교과영역을 섭렵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인교육은 유아의 발달영역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연주 등은 동작교육의 목적을 “유아가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움직임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표현력, 탐구력, 창의력을 기르는 전인적 발달” 즉, “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했다(오연주 외, 2000, p. 15). 물론 라이겐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미의 전인적 발달도 도모할 수 있다. 즉, 어린이의 음악 및 리듬적 이해, 환타지, 언어능력, 동작연습과 같은 감각 운동적 학습 역량에 기초를 형성해 준다. 크나베(S. Knabe)도 독일의 일반 유아교육학적 시각으로 분석할 때 라이겐이 자신감, 지능, 예술적 소질, 갈등극복 능력, 창의성, 집중력, 수작업 기술, 학습의지, 리더십, 언어 이해, 어휘력, 수과학적·기하학적 이해, 섬세한 운동, 공간표상능력 등의 2차적 교육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Knabe, 2008).

그러나 발도르프교육학에서 전인교육의 의미는 신체, 영혼, 정신세계를 모두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영혼, 정신의 인간 구성요소와 관련된 인지학적 관점에서 라이겐은 또 다른 전인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라이겐의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본질적인 경험을 하게 해 주고, 몸짓으로 지식을 알게 하며, 자신의 의식을 몸에 담을 수 있는 육화과정

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신체발달이란 신체에서 자아가 집을 짓는 과정으로서 움직임에 의한 ‘인간화’를 의미한다. 진정한 신체적 건강이란 자신이 깃들어 감각적으로 세상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라이겐의 음악적인 요소와 시는 어린이들의 의지력을 강하게 하고, 이후 표현력과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근간이 된다. 의지, 느낌, 사고는 슈타이너가 제시한 영혼의 영역이 하는 일들이다. 신체와 의지의 발달이 인생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유아기에 라이겐은 12감각 중 하위 감각인 신체감각 또는 의지감각을 발달하도록 도우며 이후의 “느낌감각”과 “인식감각” 발달의 근간이 된다. 이로서 신체와 의지력 발달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라이겐은 자아가 신체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결합하고, 영혼의 영역에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체적 인간 발달이라는 교육학적 의미를 지닌다.

혹자는 모방에 의한 움직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창의력 발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슈타이너의 예술 개념은 “본래의 것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일”이며(Steiner, 1977, p. 41), 모방이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닌 외부로부터 들여와 내 안에서 새로 탄생하여 외부로 다시 표출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이겐의 움직임은 본질적인 움직임으로서, 인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달리 인간적인 움직임을 일깨워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라이겐을 하면서 동시에 아직 미완성인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창조자’인 것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아기 환타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후 의식적인 환타지와 모든 상상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세상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아기에 본질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경험해 보았을 때 이를 기초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느낌과 추상적인 개념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환타지의 힘이며, 환타지는 어린이의 의지에 힘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어린이를 “감각적-의지적 존재”라 했다(Steiner, 1992, p. 19). 따라서 물질적 환경 뿐 만 아

나라, 이것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모든 것, 유아가 주변세계에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도덕적인 것까지 모방의 대상이 된다. 모방에 의해 정돈된 움직임은 의지력을 길러주고, 의지는 다시 환타지를 통해 동작으로 옮겨져 자아의 동작으로 연결된다. 이는 창의성의 기초가 되는 자아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라이겐에 담기는 내용은 삶과 자연의 본질이 담긴다. 여기에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에서 의미하는 “정신세계”(Geistesgebiet)(Steiner, 1992, p. 50)가 투명하게 보이게 된다. 어린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라이겐을 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할며, 현상과 본질을 동작에 투명하게 들어 있는 정신세계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 들어 간 이후 그 의미는 지식으로 생동감 있게 다시 탄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전적으람들이 단오 때 부채를 만들어적으용하거나 청포물로 머리를 감곤 했던 단오, 풍습을 라이겐에 담았다면, 그것은 단오, 세시풍속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과 계절, 흐름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았던 인간의 의식이 초여름의 생활작업과 라이겐에 담긴다는 것이다(윤선영, 2002, p. 74). 계절에 켜절한 실제의 생활과 라이겐의 동작 경험은 이후 학교에서 계절, 변화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을 학습할 때 다시 되살아나 지식에 생동감을 불어적넣게 된다. 라이겐의 동작은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오, 세시풍속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작활동이 아닌, 삶의 본질이 어떻게 인간의 신체 행동에 스며들 수 있는지, 정신과 영혼적인 부분이 함께 통합되는 과정이 담기게 된다.

또한 즐거움, 안정감, 사랑, 따뜻함 보다는 차가운 플라스틱과 기계적인 놀이감에 둘러싸여 지적 훈련에 의한 학습을 일찍 접하며 자라, 의지력과 생명력이 약화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라이겐은 삶이라는 따뜻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 생명력을 보호하고,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한 질적인 경험을 통해 잃어가는 감성을 다시 찾게 해 줄 수 있다. 기계문명 시대에 자연과 삶에 대한 경외심이 부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엘러직(W. Ellersiek)은 부모와 유아교사가 자연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라이겐

에 답아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Ellersiek, 2002).

## 2) 치료교육으로서의 의미

라이젠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이젠을 하는 동안 어린이들의 신체, 의식, 행동, 의지력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의식이 신체 곳곳에 닿지 못하여 목표가 없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정 반대로 매우 소극적인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라이젠은 행동을 정돈하고 자신이 함께 하는 움직임에 배울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파츠라프(1995)와 애플리(W. Aeppli)(1996)는 신체감각(의지감각)이 손상된 어린이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불안하고 산만한 어린이, 소심한 어린이, 우수에 찬 어린이로 분리하여 그 원인과 치료에 필요한 교육적 배려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불안하고 산만한 어린이는 생명감각의 손상이 원인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여 틱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소심한 어린이는 촉감의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느낌이 강한 상태다. 우수에 차거나 골똘한 어린이는 지나친 시각, 청각, 환경 변화에 의해 동작 관련 감각(고유운동감각, 균형 및 평형감각)이 손상되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지 못하여 목표가 없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즉, 움직임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이젠은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하여 신체 안에서 편안함을 조성해 주고, 자신과 주변세계와의 관계를 즐거움으로 경험하게 해 주며, 의미 있는 동작에 의해 행동을 정돈해 주므로, 신체감각의 손상에 의한 문제행동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및 치료는 생활습관, 음식, 그림, 놀이, 약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으나, 라이젠은 언어, 노래가 곁들여진 움직임의 특성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 크

고 작은 동작, 빠르거나 느린 동작, 활동적이거나 섬세한 동작 등의 양극성의 동작은 낮과 밤, 깨와 잠의 리듬에서와 같이 인간의 의식을 자각의 식으로서 내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가 자유놀이 시 외부의 세계에 자신을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라이겐을 통해 다시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정 반대의 경험을 함으로서, 자아의 힘이 강해진다. 라이겐은 하루일과를 들숨과 날숨으로 정돈하는 기능을 한다. 라이겐은 리듬 그 자체(rhythmischen Ganzen)라 할 만큼 들숨과 날숨 리듬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assmannshausen, 2008, 52). 그래서 꼭 짜여진 일과와 지나치게 풍부한 놀이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호흡이 고르지 못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료적이다. 자신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어린이는 타인도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외적인 힘에 의한 능력 위주로 판단하고 교육하는 환경에서 수동적인 학습에 의존하여 환타지가 고갈된 어린이들에게 내적인 힘을 인정받고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은 더욱 필요하다. 5도 음정으로 된 음과 멜로디는 어린이가 주변 세계로부터 손상 받은 영향에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해 준다. 무의식을 보호하는 원의 동작 방법 역시 인지 위주의 학습으로 인해 너무 일찍 의식이 일깨워진 어린이들에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 Ⅲ. 결 론

발도르프유아교육기관에서 라이겐을 하는 목적은 의식을 몸 안에 담게 하는 육화과정, 모방을 통한 몸으로부터의 학습, 의지력과 감각 발달에 있다. 라이겐은 리듬, 멜로디, 언어, 내용, 동작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상호 연관성 있게 일치되어 어린이들에게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또한 펜타토닉의 5도 음정, 언어의 예술성을 최대한 활용한 시, 삶과 자연이 담긴 내용과 이들의 본질적인 표현인 동작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라이젠은 말놀이와 움직임에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고유한 욕구를 건강하게 지원해 주는 동작, 음악, 생활이 담긴 예술 활동으로서 전인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어린이의 신체, 영혼, 정신세계를 보살핌으로서 삶과 자연의 본질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성을 길러주며, 산만하거나 소심한 행동 또는 주변 세계에 소외된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신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치료적 효과가 있다. 라이젠이 지닌 움직임의 질은 신체감각이 손상된 문제행동을 치료하는데 좋은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라이젠은 움직임의 저해 현상을 보이거나 지식 위주의 학습으로 삶의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인지 중심의 교육은 자아가 머리로만 연결되어 기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 라이젠은 기본생활 습관, 신체, 사회, 탐구,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하는 교수법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몸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동작교육은 자신의 신체 인식, 신체의 기능 인식,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 습득, 신체의 활용, 창의적 표현 등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신체를 외부로 사용하는 ‘소비지향적인’ 움직임에 치우쳐 있다. 라이젠은 그 반대인 인간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고, 바로 그 곳에서부터 진정한 인간 창조를 지향하는 움직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라이젠의 실제적인 동작 방법은 어린이로 하여금 어떤 지식과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과연 건강한 움직임인가에 대한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일반적인 동작 활동은 자신이 신체에 갇들어 자신을 만들어 신체의 모든 기관을 조화롭게 형성하는 ‘생산지향적인’ 움직임이 전제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신체-움직임-언어-리듬-생활-의미가 모두 일치된 라이젠의 특성은 진실로 자신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라이젠과 같은 움직임의 속성을 지니는 동작활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라이겐이 지닌 전인적·치유적인 교육 효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사는 어린이를 외부로만 향하게 하는 움직임을 지양하고, 우선 어린이의 자아가 스스로에게 깃들 수 있는 움직임의 요소를 찾아 자신의 몸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연구하여 도입해야 한다. 항상 드라마틱하게 구연하여 들려주는 동화, 어린이의 영혼을 뒤흔들며 움직이는 인형극,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즐거운 것이라는 선입견, 만화영화 속 주인공들의 움직임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아이들, 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방법도 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임의 질이 어린이의 의지력과 몸을 만들고 느낌과 사고로 연결되어 가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스스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아를 깃들게 하는 연습을 하며 그 효과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라이겐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학 전 뿐 만 아니라 아직 유아기에 놓여 있는 학령기 중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도 시도해 볼 만하다.

본 논문은 지면을 통해 문자로 전달해야 하므로 라이겐 동작의 고유한 속성을 실제로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라이겐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바탕으로 교육학적 의미가 지니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인구 (2006). 발도르프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이나무.
- 곽노의 (1999). 자유 발도르프 유아 교육. 서울: 밝은누리.
- 김은심 (1994). 유치원 동작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4(2), 135-151.
- 김은심, 박수미(2003). 유치원 교사의 동작교수 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 실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1-266.

- 백성희, 이해은 (2006). 동작요소중심의 유아동작교육 프로그램이 기본동작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37-60.
- 오연주, 이경실, 김현지, 박경애 (2000). **유아 동작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윤선영 (2002). **발도르프유아교육의 첫 걸음**. 서울: 창지사.
- 윤은미 (2007). 음악과 동작의 통합 활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 탐색. **유아교육연구**. 27(3), 93-120.
- 이송은 (편) (2002). **표현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손유희**. 서울: 동심.
- 이영심 (2000). **손동작과 동작놀이**. 서울: 창지사.
- 이화도 (2009). 유아교육에서의 '몸'의 개념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메를로 퐁티(Merleau-Ponty)의 지각현상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 29(1), 259-277.
- 조선일보. 2009. 7. 5. 제 275315호. A6.
- 한국슈타이너교육예술협회 (2001). **2001년 발도르프교사교육 여름아카데미. 발도르프자료모음집이 9**.
- Aeppli, W.(1996). *Sinnesorganismus Sinnesverlust Sinnespflege*.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 Ellersiek, W. (2001). *Beruehungs- und Handgestenspiele*.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 Ellersiek, W. (2002). *Handgestenspiele, Reigen und Lieder*.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 Internationalen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erten (2000). *Rhythmen und Reime. Arbeitsmaterial aus den Waldorfkindergaerten Heft 6*.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leben.
- Internationale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erten (2001). *Vom Waldorfkindergarten*. Stuttgart: Internationale Vereinigung der Waldorfkindergarten.
- Jaffke, F. (1991). *Tanzt und Singt!*. Stuttgart: Verlag Freies Geistes Leben.

- Jaffke, F. (2000). *Spiele und arbeiten im Waldorfkindergarten*. 윤선영 역. 서울 : 창지사.
- Knabe, S. (2008). <http://www.knabes.de/Waldorfpädagogik/Reigen-Waldorfkindergarten.shtml>에서 2008년 4월 15일 인출.
- Langscheid, O. (2009).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2009 하계 학술세미나 종합토론 질의응답 내용 중.
- Patzlaff, R. (1995). Die Rettung der Sinne - Aufgabe unserer Zeit. *Erziehungskunst* Heft 5. 485-500.
- Sassmannshausen, W. (2001). **발도르프교육 자료모음집 6**. 한국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예술 협회.
- Sassmannshausen, W. (2008). *Waldorf-Pädagogik auf einen Blick*. Freiburg · Basel · Wien: Herder.
- Steiner, R. (1975). *Allgemeine Menschenkunde als Grundlage der Pädagogik. Erziehungskunst I*. Dornach/Schweiz: Rudolf Steiner Verlag.
- Steiner, R. (1977). *Die Erneuerung der pädagogisch-didaktischen Kunst durch Geisteswissenschaft. Vierzenten Vortraege gehalten fuer Lehrer und Lehrerinnen Basels und Umgebung. 20. April bis 11. Mai 1920*. Dornach/Schweiz: Rudolf Steiner Verlag.
- Steiner, R. (1992). *Die Erziehung des Kindes vom Gesichtspunkte der Geisteswissenschaft*. Vortrag vom 1907. Dornach/Schweiz: Rudolf Steiner Verlag.

## ABSTRACT

# Die paedagogische Bedeutung des Reigens fuer die Vorschulerziehung

Yoon, Sun-Young

Diese Arbeit beschaeftigt sich mit der paedagogischen Bedeutung des Reigens, der in den Waldorfkindergaerten durchgefuehrt wird, um die Elemente des Reigens fuer die uebliche Vorschulerziehung vorzuschlagen. Die Arbeit geht vom Problem der Bewegungsstoerungen der Kinder von Heute aus.

Der Reigen kommt aus dem alten traditionellen Kreistanz, der das Menschenbewusstsein von der Umwelt zur Gruppe und zu Sich zu kommen fuehrte. In den Waldorfkindergaerten wird der Reigen fuer die Inkarnation der Kinder und fuer die Pflege der Koerper- bzw. Willenssinn eingesetzt. Der Reigen besteht aus den rythmischen bzw. musikalischen Elementen, Sprache und Bewegungen. Diese Elemente ermoeeglichen den Kindern die kuenstlerische Seite der Sprache zu erleben, und bilden eine Huelle zum Behagen. Der Inhalt des menschlichen Lebens und der Natur wird durch die Bewegungsspiele ausgedrueckt. Die Kinder koennen durch diese nicht nur mit der Welt eine Beziehung herstellen, sondern auch sich in den eigenen Koerper ankommen und diesen bilden. Indem der Reigen Leib, Seele und Geist pflegt, wird die ganzheitliche Erziehung ermoeeglicht. Die Qualitaet der Bewegungsart kann besonders zur Heilung der Bewegungsstoerungen der Kinder beitragen.

Die Autorin schlaegt den Erziehern vor, nicht immer die

konsumorientierte Bewegungsspiele anzubieten, die die Kinder sich in die Welt etwas hinzustellen fuehrt, sondern ertst die Bewegungen, die Kinder zu sich zu kommen fuehren, einzusetzen vor.

Key Words : Reigen, Bewegung, Inkarnation, Pentatonik, Koerper- bzw. Willenssinn, ganzheitliche Erziehung, heilende Erziehung

투고일: 9월 30일, 심사:11월10일(12월 7일), 게재확정일: 12월 12일